

“불교와 민족주의 결합은 불교 교의 파괴”

불교평론, 창간 16주년 기념 ‘불교, 내셔널리즘’ 세미나서

불교평론은 창간 16년을 맞아 8월 28일 ‘불교,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말하다를 주제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민족주의와 결합한 불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종인 “불교, 민족주의로 힘을 잃다”

김종인 경희대 교수는 ‘한국불교 내셔널리즘의 역사와 평가’에서 한국불교의 민족주의 운동에 비판을 가했다.

김 교수는 먼저 “한반도의 불교는 오랜 세월 국가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국가 종교로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불교는 왕실과 귀족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지 못했고, 이 역사관계에서 아래에 있었다. 이 한계는 조선시대 명백했다. 신홍 사대부의 억압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불교를 우대하는 일제 치하에서 많은 불교인들은 민족주의자보다는 식민지 정부에 협조적이었다. 해방 이후 불교인들은 문화민족주의를 강화해 불교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켰으며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한축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설명하며 민족주의 열풍 속에 불교가 휘말리는 것을 경계했다.

조명제 “문화민족주의에 매몰돼 박물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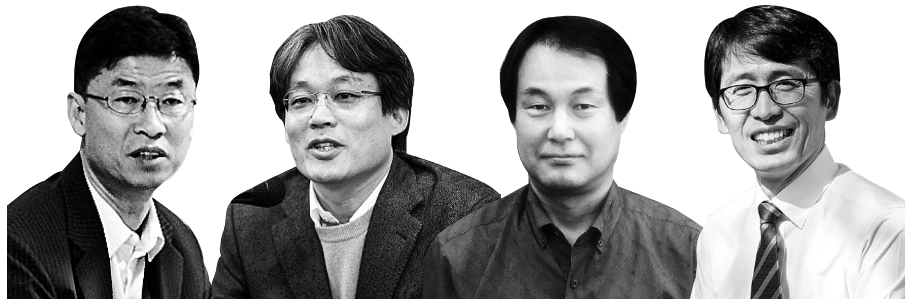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불교 내셔널리즘의 발생과 전개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에서 한국불교가 근대 산업화 시기의 반대급부로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제시됐고, 그 혜택의 이면으로 박제화된 박물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근현대 제국주의 관련 불교행보 고찰

독립운동 미명하에 살생합리화 비판

“불교전통문화 ‘박물관 전락’ 우려”

조 교수는 “불교계는 박정희 정권이 민족문화 복원을 기치로 경주를 비롯한 문화유적을 발굴, 정리하고 관광지화하는 과정에서 큰 혜택을 입었다. 하지만 그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이 박물관화됐다. 또한 최근에는 불교 종교의례나 신앙대상이 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갖는



김종인

조명제

원영상

김영진

사회인식 부재와 빈곤함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시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영상 “일본불교 제국주의에 종속”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일본불교의 내셔널리즘의 기원과 역사, 그 교훈’을 통해 일본의 근대불교가 국가 하부구조로 편입됐으며 이는 자발적 국가주의였다고 진단했다.

원 교수는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새 정부는 천황의 권력을 복귀시켜 신국가의 강력한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식 법난인 ‘폐불해석’이 일어났다. 이는 신불 분리정책으로 전국사사의 승려가 환속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불교는 스스로 공인교 운동을 통해 국가 보호를 받고자 했다. 특히 식민지 국가에서 근국주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교의를 왜곡시키면서까지 국가의 도구가 되어갔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어 “2011년에야 조동종은

담화를 통해 참회와 실천의 담화를 통해 사죄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중국 일제 대응하며 살생 합리화”

김영진 동국대 교수는 ‘중국 근대 타이쉬의 불교회교과 내셔널리즘’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의 사상이 민족주의로 발현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타이쉬는 사회 위난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 중생구제의 일환이라고 인정하며 불교인도 적을 물리치는 행위가 합리화하는 데는 위험이 도사린다”며 “이 일종의 자기 합리화로 항마를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시 약소국인 중국의 내셔널리즘은 저항적일 수 밖에 없지만 이것을 합리화하는 데는 위험이 도사린다”라며 “불교가 거대종교로 존재하는 여러 국가에서 이는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말했다.

한국 전통산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는?

9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2차 국내학술회의

한국의 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는 오는 9월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전통산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를 주제로 제2차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의 ‘한국 산지가람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박종관 건국대 교수가 ‘한국 산사의 자연입지 특성’, 엄기표 단국대 교수가 ‘법주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양은경 부산대 교수가 ‘부석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한정호 동국대 교

수가 ‘통도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봉정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김정희 원광대 교수가 ‘선암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송은석 동국대 교수가 ‘대흥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주수완 고려대 교수가 ‘마곡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이혜은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장의 주제로 남동진 서울대 교수, 류성광 계명대 교수,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홍광표 동국대 교수를 포함한 5명이 발제자와 토론을 갖는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일대기 <월인석보> 경매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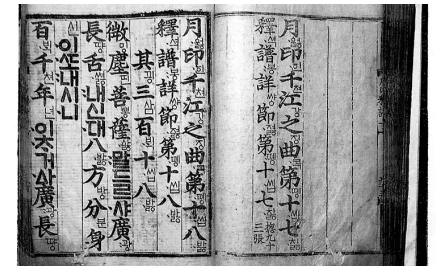
1459년(세조 5) 간행된 석가의 일대기인 <월인석보(月印釋譜)> 등 보물 18점이 경매에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저축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월인석보(月印釋譜·사진) 등 보물 18점을 10월 경매 시장에 내놓기로 하고 매각주간사 회사로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을 선정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는 1459년에 세조가 부왕 세종과 먼저 세상을 떠난 큰아들 세자 도원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엮은 석가의 일대기다.

세조는 부왕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을 설명문으로 담았다. 조선시대의 목판 인쇄 기법을 엿볼 수 있는 귀한 문화재다.

월인석보를 비롯해 고서화 1000여점 등은 김민영 전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유하던 것으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



전 저축은행장으로부터 확보해 예금보험공사에 인계했다.

검찰은 김 행장을 추궁해 그가 월인석보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 남긴 필적 하피첩,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3권 등 보물 18점을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 수집가로 널리 알려진 김 행장이 검찰 수사가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컬렉션’을 10억 원에 황급히 넘겼던 것이다. 결국 김 행장은 검찰에 보물 18점과 고서화 950여 점을 제출했다.

노덕현 기자

금빛 범어 장식된 고려 목관 출토 ‘눈길’

나주문화재연구원, 순창 농소고분서 확인... 13~14세기 제작

육자진언 등 300자 적혀져

범어 장식 목관 출토 ‘처음’

불교 신앙 깊숙이 자리매김

로 확인됐다.

농소고분 목관에서 확인된 범어. 고려~조선 시대 주로 사용된 실담체와 란자체로 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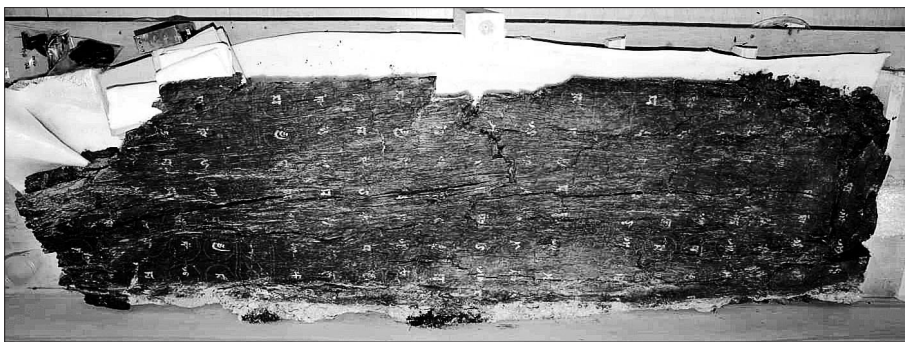
목관의 표면에는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주로 사용됐던 범자인 ‘실담체(6세기 창제된 범어를 적는 문자)’와 ‘란자체(10세기 창제된 범어를 적는 문자)’가 적혀져 있다. 범어에 내용은 ‘육자진언(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 등 진언 2종이다. 글자는 금가루로 쓰여 있으며, 흰색의 원형무늬가 각각의 글자 바깥을 장식하고 있다.

목관에 적힌 두 진언은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현재까지 출토된 고려 시대의 목관에서 ‘파지옥진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빛 범어 진언으로 장식된 고려시대 목관이 발견됐다. 이는 고려시대의 장례문화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로 여겨진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는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순창 운림리 농소고분에서 출토된 관곽(棺槨)을 조사한 결과, 관곽의 안쪽 목관(木棺)의 외면에서 금빛으로 화려하게 쓰인 300여 자의 범자(梵字)를 확인했다.

목관의 재질은 소나무이며,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범어가 장식된 출토 목관

그간 삼국 시대 고분으로 알려졌던 순창 농소고분은 지난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 시대 덧널무덤(土壙木槨墓, 토광목곽묘)으로 확인되었으며, 청동합(靑銅盒), 청동수저를 비롯하여 머리카락을 문진 다발이 가지런히 담긴 청동반(靑銅盤)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고려시대 목관이 온전하게 확인되고 범어가 쓰여진 사례도 처음 있는 일”이라

며 “청동 금속 유물이 다양으로 출토되고 금가루로 써진 범어로 장식된 목관을 보아 상당한 고위층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당시 불교문화가 어떻게 장례문화와 접목됐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수습된 목관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고분의 성격, 출토 유물, 범자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은 발굴조사보고서를 내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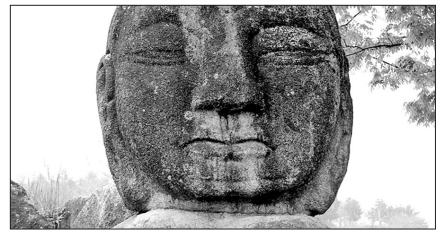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원주 교항리 佛頭, 제 몸 찾는다

원주시, 문화재청 발굴 현상변경 허가 완료

원주시가 현재 머리만 남아 초조면 교항리 마을회관 야외에 보관중인 불두(佛頭)의 원형 찾기에 나선다.

이 불두는 원래 원주시 초조면 교항리 도로변의 거대한 자연암석을 몸체로 하던 것으로 부처님의 몸에 해당하는 부분은 1980년대 옛 국도 42호선 도로 확장공사 중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성토작업과 함께 도난 위기에 있던 불두만을 마을 사람들이 모셔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신(佛身)으로 쓰인 자연암석에는 옷 주름이 선각(線刻)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접 나서 불두와 불신이 떨어진 부처님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



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역의 문화재 원형 찾기와 보존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원주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고, 다음 달 중순께 전문 문화재조사 기관에 의뢰해 교항리 불두의 불신을 찾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이 어떤 것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리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